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7년 11월 발행 (제 91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권두 메시지 '베델을 요구 하 길갈에 가지마' 예레미야

◎시대를 깨닫는 '예수를 경시하는 세대' H. F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은 "베델을 요구 하 길갈에 가지마"라는 제목으로 메시지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모두 무력화시킬 사로 옮겨진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있는 것을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텍스트는 아모스 5 : 4-6 곳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 보도록하자.

아모스 5:5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녕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구절에서 주님은 "베델을 요구하는구나. 길갈로 가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있습니까? 다음의 설명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16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28:17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28:18 야곱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28:19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 곳에서 깨닫는 것이이 것입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 인 야곱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 문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예를 들어, 가톨릭에서 독립하고 종교 개혁을 한 루터처럼 큰 종교 경험 큰 전환점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일까요? 다음에 그 기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7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5:8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5:9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에 출애굽 한 백성들에게이 길갈에서 여호와 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를 제거했다."일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의 비유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길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 된 기념해야 할 장소,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에서 큰 의미가있는 곳이다 베델, 길갈에 대해 주님은 "베델을 요구하는구나. 길갈로 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음과 같이 이유가 말해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5:5 벨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녕 사로잡히겠고 벨엘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에는 이러한 신앙의 일대 개혁이 일어난 기념비적 인 장소이다 베델에 대해 그것은 "무에 돌린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길갈은 "사로 옮겨진다"고 말해지고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종교 개혁이 일어난 장소이며, 훌륭한 신앙 부흥이 일어난 장소도 그 교회 교단도 언젠가는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옮겨지는 하나님의 전에 무의 존재가,

그 말해지고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교회는 영원히 같은 모습이 그치지 않는 중은 변질되어 버리고 있어야 순수한 모습에서 변해 버리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변천 사로 옮겨져 무로 돌린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베델은 시대를 생각한다면 야곱의 시대의 장소이며, 길갈도 여호수아 시대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세에 임하는 우리에게 경고로 작성된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의 우리에게도이 벨엘과 길갈의 설명은 의미있는 것 인 것입니다. 아니오, 지금의 시대의 우리에게 대한 경고로 이러한 설명은 서면으로 이해한다.

구약에서는 베델은 수포로 돌아 간다 길갈도 사로 옮겨 질 수 하나님 앞에 진실이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신약에서도 얼마나 큰 신앙적인 교회도 교단도 머지 않아 무산 돌린다 또한 사로 옮겨진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베델은 무산 길갈도 사로 옮겨진다>

신약에서도 한때 순수하고 충성 교회도 증은 무산 또한 사로 옮겨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종교 개혁 500 주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에서 500 년 동안이 지났습니다. 루터는 어떤 사람인가,라고하면 종교 개혁을 실시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분리시킨 신앙의 위인입니다. 그의 신앙은 순수한이며, 그 행위도 순수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을 계승하는 교단은 루터라고합니다. 그러나 500 년의 해를 거쳐 루터는 완전히 그 교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 루터는 가톨릭과의 일치 및 에큐메니컬을 숭선하여 선도 변절 교단 배신 교단이되어 버렸습니다.

시편 102:25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102:26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102:27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년대는 무궁하리이다

바로 신약 시대에도 베델은 무산 길갈은 사로 옮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은 루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교단이 동성애를 수용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단에서도 "베델은 수포로 돌아 간다 길갈도 사로 옮겨진다 '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교단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릇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주의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이 있다고합니다.

그는 지금은 "가톨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배교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마리아가 원죄이다 든가, 승천했다 든가, 심지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마리아를 더해 성 4 위 일체 '등 모독적인 교리를 말합니다. 이 천주교에 문제가 없어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빌리 그레이엄이 이미 베델처럼 무산 사람 길갈처럼 사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천지는 옷처럼 바꿀 수 있다>

이것은 교회가 시간이지나면서 변질, 변천하는 것을 성경은 어떤 표현을 바꾸어 말합니다. 그 표현은 비록이며 천국의 비밀입니다 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한다. 예를 들어, 성경은 교회의 변질을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말합니다.

여기에 쓰여져있는 천지는 교회의 예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조상 인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기독교인은 별 모래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는 별 모래를 수용하는 장소로서 교회의 비유입니다.

이 천지 교회에 대해 "이러한 것들은 멸망 것"으로 결국은 망해가는 변질되어가는 것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옷처럼 갈아 끊어합니다."와 같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은 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 그리스도를 덮는 옷의 역할에 걸맞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 불행히도 진실입니다.

"당신이 옷처럼 대체 될 때 그들은 바뀌어 버립니다."

여기에서는 기모노인 교회가 대체 변해 버리는 것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첫 강림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 때 그리스도의 몸을 덮는 것이었다 구약의 옷, 즉 구약 시대의 유대인 집회, 교회는 그를 잡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집회는 그리스도를 수용 않고 오히려 그를 이단시하고 핍박 한 것이었습니다.



루터 500 년 축제

그리고이기 때문에 그 기모노, 집회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고 없습니다 신약의 교회로 개조 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옷처럼 대체 될 때 그들은 바뀌어 버립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리를 좇든 못한 제외하고, 기모노인 교회는 시대와 함께 마모, 용을 제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침내 오래된 옷은 새 옷, 새 교회로 변화 해 버리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천지 지나가>

그런데 교회가 변질되어 버린다 그것은 구약의 집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 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날에 신약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 배교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은 다른 표현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35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천지가 반대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는 상기와 같이 교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언이며, 천지 즉 교회가 머지 않아 지나가 버리는

것, 그리고 그 지나가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계하는 것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중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구축하고 過ぎ去ら시키려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신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결과로 반대로 교회 쪽이 지나가 버리는 소멸 해 버리는 것이 예언되어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 죽은 것으로 하려고 그 결과, 반대로 교회가 소멸한다? 그런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6:14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여기에서는 하늘 즉 하늘의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비유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암시하고 두루마리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두루마리 (biblion)는 즉 성경입니다. 즉 하늘의 교회도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정 할 때, 그 교회가 지나가 버려 소멸 할 여기에 암시되어 이야기하고있는 것입니다.

"모든 산과 섬 '도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날 "모든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이동"함이 예언되어 말해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본연의 지위 장소에서 옮겨져 이관 된 죄에 빠질 수 비유로 말씀하고있는 것입니다.

이 것은 지금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원래 동성애는 가증 한 죄로 피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 엄격한 경고가 여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동성 결혼을 주례 목사님까지 존재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급속하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있는 날이왔다 가고 있으며 모든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옮겨지는 날이 도래하고있는 것입니다.

<배교>

교회가 종말의 날에 변질 낡은 옷처럼되고, 옮겨진다 하느냐고 묻자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편지는 종말의 날에 교회에 배도가 발생할 수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에는 명확하게 배교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으며, 잘못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에 교회가 변질되어 버려, 결국 배교에 빠져 버린다는 불행히도 성경이 반복 반복 경고하고있는 것입니다.

<배교의 교회에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와 같이 배교 한 교회에 대한 말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질 그것은 종말의 예언의 중심적인 경고입니다.

누가복음 21:20 ○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21:21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21:22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21:23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이 예언은 2 배의 예언입니다. 즉 주님의 첫 오순절에 첫 번째 성취가 더욱 종말의 날에 두 번째 성취가 있습니다. 주님의 첫 강림 후, 이 예언은 모두 성취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기원전 70 년에 로마 군대에 둘러싸여 멸망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 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의 단 한 사람의 아들 이신 그리스도를 잡아서 사형 선고를 실시 십자가에서 목숨을 앗아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날에 터진입니다. "이것은 쓰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보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쓰여있는 것처럼 그날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첫 오순절의 일이지만, 그러나 종말에 일어날 수있는 형태입니다. 재림의 날에도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즉,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재현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배교도 재현합니다. 다음 계시록의 말씀이 그 배교와 십자가의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8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기에는 종말의 날에 소돔 화 이집트 된 배교의 교회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재현 할 예언되어 있습니다. 소돔은 동성애로 유명한 곳이며, 지금 적극적으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전에 소돔이라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배교의 교회에 그날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일까요? 다음의 말씀이 그 날에 틈입니다.

그때 유대에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십시오. 도시 안에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시작의 오라 시골에있는 사람들은 도시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소돔화하고 이집트화 된 도시, 즉 배도 교회를 나오는 그 죄에 말려 들지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소돔에서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영원히 오롯이 우리의 모범이며, 지표입니다. - 이상 -



소돔성에서 산으로 도망 로또들

시대를 깨닫게 "예수를 경시 세대 'H.F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진리 요 생명이다라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전 인류는 예수가 필요하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하에 많은주의 일 사람들이 복음을 전세계에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요 진리 인 것은 당연 하겠지요. 는 지금의 시대는 어떨까요.

영국에서 기독교 이외의 감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 교육의 교훈에서 BC 와 AD 이라는 역사적 용어를 삭제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용어 인 BC, Before Christ 및 AD, AnnoDomini (이것은 "주님의 해 '를 의미한다)는 BCE-Before Common Era 및 CE-CommonEra 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17 년 10 월 4 일 CHRISTIAN NEWS 보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국학교 교육 현장에서 BC와 AD 라는 용어가 버려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감정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라고 말할 문구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은 용어를 배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앞으로 몇 개월도하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어갑니다 만, 미국에서는 일단 가게 등에 "Merry Christmas"라고 적힌 장식이 많이 장식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Merry Christmas"문자도 너무 보이지 않고 또한 가게의 점원에서 "Merry Christmas"대신 "HappyHolidays"라고 얘기되는 것이 많다 상황이라고합니다. 인사말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 서로 습관이 현재는 점차 메리 크리스마스 "MerryChristmas"라는 말이 아니라 Season 's Greetings 와 해피 홀리데이 스 HappyHolidays 말에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 말의 표현이나 용어에 인종 · 민족 · 종교 · 성 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은)이란 개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MerryChristmas"라는 말을 사용하여 특정 종교 또는 종교에 관련된 행사 · 습관을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고, 또한 사람의 정신 (종교)의 자유를 의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않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생각이 주류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의 배려라는 이름하에 점차 예수의 이름이 지워져 가고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국가라고했던 영국이나 미국에서 인권 개념이란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잃어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톨릭에서는 2017 년 로마 가톨릭 교회는 파티마의 성모 나와 100 주년을 축하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100 년 전,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성모가 출현했다고되어 후년에 가톨릭 교회 로마 교황청은 이 일련의 현상을 성모의 출현과 공인 5 월

13 일 파티마의 성모 발현 기념일로하고 있습니다. 2017 년 5 월 13 일, 프란시스코 교황이 파티마 성모 출현 100 주년을 기념 순례 이날 일본에서도 파티마를 기념 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가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에 초점을 맞추고있는 것이 가톨릭 신앙입니다. 예수기도보다 마리아에 대한기도에 중점을두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예수를 업신 마리아에 대해 성경에는없는 해석을하고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황 프랜시스 2015 년 NY 맨하탄의 성 패트릭 성당에서 다른 종교와의 융합, 에큐메니컬 "쿠리스라무"에 대한 종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슬람의 하나님의 통칭 「자비로운 전능자 "라고기도 일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약간의 예에서도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분명 하겠지요.

이러한 천주교와 500 년 전에 결별을 나눈 것이 개신교입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신앙과 상반되는 것이었다해야하지만, 현재는 어떨까요?

올해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500 주년 기념의 해이며 세계에서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큐메니컬적인 행사가 많이 바뀌 었습니다. 결별하고 가톨릭과 합동 행사가 진행되며 그것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아닌 공생을 대립이 아닌 대화와 서로의 이해를한다는 에큐메니컬적인 취지를 펴고 있습니다.

현재 주 예수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립보다는 동반자라고 같은 인간적인 견해의 바탕으로 세계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만이 구원이고 진리라는 것은 분쟁의 근원이되는로서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추구 예수를 강조하는 것은 평화를 방해 극단적 인 사람처럼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멸시 시작한 세대라고 아닐까요.

예수께서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것은 구원을 얻으리라"(마 10:2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께서 말씀하신대로, 결국 유일한 진리 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사람은 미움 시대가 온다. 그때가 다리를 죽이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않으면 안됩니다. - 이상 -



기독교와 이슬람의 융합 : 크라이슬람